

중국 유일의 여황제 武則天의 詩歌 연구

— 권력의 찬탈과 권위의 도전 사이에서

盧垠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무측천의 시가 내용 분석
 - 2.1 郊廟歌辭
 - 2.2 遊宴詩
 - 2.3 贈詩
 - 2.4 기타
3. 남성적 권위에 대한 도전
 - 3.1 天祭와 封禪
 - 3.2 유일무이한 황제의 권위
4. 나오는 말

1. 서론

중국은 역사적으로 皇帝가 가장 많았던 국가이다. 기원전 221년 秦始皇帝가 황제라는 칭호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191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溥儀가 하야하기까지, 2133년 동안 황제로 칭해진 이들을 모두 합하면 494명이다. 그중 여성으로 황제의 지위에 오른 이는 당나라 武則天(624~705)이 유일무이하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였을 뿐만 아니라, 67세라는 늦은 나이에 황위에 올랐던 황제이기도 하다.¹⁾ 무측천은 14세 때 당나라

* 誠信女子大學校 中國語文文化學科 講師 (r-yinjing@hanmail.net)

2대 황제 太宗의 후궁으로 입궁해 才人(정5품)에 봉해졌다. 그러나 태종이 붕어하자, 후사를 두지 못한 선제의 후궁은 비구니가 되어야 한다는 법도에 따라 머리를 깎고 感業寺에 들어갔다. 후에 고종의 총애를 받아 다시 궁으로 돌아와 王皇后와 蕭淑妃를 제거하고 황후가 되어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그리고 고종 사후에 아들인 中宗과 睿宗을 차례로 즉위시켰다가 폐위시키고 직접 국호를 武周로 명명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스스로를 則天金輪大聖神皇帝라 했던 그녀는 武周의 초대황제로 15년간 통치했다. 당나라의 290년 역사에서 초기 약50년 정도가 무측천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녀가 당나라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측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부정적 평가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이는 유가적 관점에 사로잡혀 여성으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그녀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史家들이 《新唐書》·《資治通鑑》 등의 역사서에서 폭정을 일삼고 권력을 위해 자식마저 죽였던 비정한 모습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²⁾ 민생을 보살피서 나라를 훌륭히 다스린 女傑이라는 긍정적 평가 또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 평가 뒤에 사족처럼 살짝 언급될 뿐이다. 그로인해 지금까지 그녀의 삶과 정치적 공적에 대한 褒貶 논쟁이 계속되는 중이다.

이러한 포퓰 논쟁은 대체적으로 역사와 정치적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구당서》 권6 <則天皇后武曌>에 의하면 그녀는 평소에 지혜로운 계책을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이 문학과 역사에도 두루두루 미쳤다는 언급이 있다.³⁾ 실제로 《全唐文》과 《唐文拾遺》·《唐文續拾》, 《唐大詔令集》 등

- 1) 중국 황제 중 가장 늦은 나이에 황위에 오른 이는 五代十國중 하나인 南楚의 개국황제인 楚武穆王 馬殷으로, 927년 77세에 황위에 올랐고 930년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 2) 무측천이 자식을 살해했다는 것은 《구당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고 《신당서》에서 보인다. …… 《신당서》에서 무측천이 황태자 이홍을 죽였다는 기록은 세 곳에서 보인다. …… 《신당서》는 무측천이 죽인 것이라고 단언한다. 항간에 떠돌던 소문을 역사화 한 것이다. …… 여기에는 吳縝이 말한 것처럼 “무씨의 악을 더 심하게” 서술하려는 의도가 가미되어 있다. (안예선, <《신당서》와 《구당서》의 서사 비교 - 무측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90집, 2018, 141-145쪽 참조)
- 3) 《舊唐書》 卷6 <本紀>第6 <則天皇后武曌>: 后素多智計, 兼涉文史.

에 무측천의 문장이 100여 편 실려 있고, 《全唐詩》와 《全唐詩外編》에 무측천의 시가 60수 실려 있다.⁴⁾ 무측천의 시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종류는 郊廟歌辭와 遊宴詩·규원시·영물시·불교시·유선시·贈詩 등으로 아주 다양하다.

무측천의 시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武則天의 詩歌研究》(유현정,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가 유일하다.⁵⁾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60수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당시》 권5에 수록되어 있는 47수만을 대상으로 삼아, 무측천의 시가 창작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표된 무측천과 관련된 단편 논문과 석박사 논문은 320여 편 정도로,⁶⁾ 주로 무측천의 家系와 용인술·정치적인 功過·종교적 성향·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무측천의 문학세계를 다룬 논문은 30편 남짓이며, 직접 시가 창작에 대해 다룬 것은 석사논문 5편⁷⁾과 단편 논문 9편⁸⁾이 있다.

-
- 4) 《전당시》를 살펴보면 수록작가가 2,200여명인데, 그중 여류시인이 207명이다. 그 중에서 작품 수가 비교적 많고 내용면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이로 李治와 薛濤·魚玄機를 꼽을 수 있다. 《전당시》에는 이아의 시가 18수, 설도의 시가 87수, 어현기의 시가 50수 실려 있는데, 57수가 수록되어 있는 무측천 또한 수량면에서는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
- 5) 무측천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당 무측천과 정치집단세력의 변질>(최황자, 《중국학보》26권, 1986), <則天皇太后 執政時期的 政治와 人物>(任大熙, 《魏晉隋唐史研究》第2輯, 1996), <武則天 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장정해, 《중국어문학지》 제14집, 2003), <신라 선덕여왕과 중국 측천여황제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하영애, 《담론 201》 제14권 1호, 2011), <太宗·武則天·玄宗의 唐代전기 樂舞발전에 대한 공헌>(남종진, 《동양예술》 제24호, 2014), <측천무후의 남성 편력에 관한 문학적 각색 양상 연구: 동아시아 여성군주론의 관점에서>, (신정수, 《中國學論叢》 제57호, 2017) 등이 있다. 이외에도 무측천의 服飾과 무측천을 소재로 한 소설·傳記·드라마와 관련 된 논문도 있으나, 무측천의 시가 문학과는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 6) 段桂英, 《新中國成立以來的武則天研究》(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53-54쪽 참조.
- 7) 《武則天詩歌研究》(路榮, 西北大學, 2001), 《武則天及其詩歌研究》(程莉, 四川大學, 2006), 《論武則天時期詩歌發展的特質及促進因素》(王歡, 漳州師範學院, 2008), 《武則天詩文男性化審美形態研究》(胡敏, 湘潭大學, 2009), 《武則天詩歌研究》(李楠, 內蒙古大學, 2017)
- 8) <武則天的詩歌藝術成就及她對唐代文學發展的貢獻>(唐沙, 重慶工學院學報, 2008年 6期), <武則天詩歌研究>(郭海文, 渭南師範學院學報, 2009年 1期), <論武則天詩歌中的帝王氣象>(司海迪, 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 2009年 6期), <武則天詩歌內容探析>(李海燕, 《當代小說》, 2010年 3期), <《全唐詩》所見武則天詩作的類型分析>(張紅, 陝西理工學院學報, 2013年 2期), <試論武則天於初唐格律詩定型之貢獻>(王明好, 青年文學家, 2014

본고에서는 무측천의 시 내용 분석을 통해, 垂拱4년(688)부터 長安2년(702)까지 무측천의 시가가 창작된 시기가 武周성립과 武周 통치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착안하여, 그녀의 시가 속에 담긴 황제 무측천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무측천의 시가 내용 분석

무측천은 일대를 품미했던 통 크고 남다른 모략을 지닌 풍운의 여걸이었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문학적 재능도 갖추고 있었기에, 문학방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많은 창작을 남겼다. 기록에 의하면 무측천이 남긴 문집으로 《垂拱集》 100권과 《金輪集》 6권·《臣軌》 2권 등이 있었다고 한다. 《전당시》의 작가소전을 보자.

측천황후. 고종의 황후로, 무씨이다. 并州 文水 출신으로, 荊州 都督인 武士護의 딸이다. 永徽 6년(655)에 황후가 되었다. 中宗이 즉위한 후 황태후로 칭해졌다. 국정을 맡아보면서 스스로 황제가 되는 길을 찾아, 국호를 周로 바꾸고, 자신의 이름도 暹로 개명하였다. 22년간 재위했고, 中宗의 반정으로 則天順聖皇后의 시호를 받았다. 《垂拱集》百卷과 《金輪集》六卷이 있다. 지금 46편의 시가 남아있다.⁹⁾

《수공집》과 《금륜집》·《신궤》는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전해지는 《全唐文》과 《唐文拾遺》·《唐文續

年 23期), <從武則天詩歌看其管理風格>(王樂樂, 語文學刊, 2015年 22期), <武則天的詩歌創作及對初唐詩壇的影響>(李靜, 呂梁學院學報, 2016年 3期), <武則天與初唐詩歌——以其影響宮廷詩歌的創作情境爲中心>(盧嬌, 延安大學學報, 2018年 2期),

9) 則天皇后. 高宗后, 武氏. 並州文水人, 荊州都督士護之女. 永徽六年, 立爲皇后. 中宗即位, 稱皇太后. 臨朝, 尋自稱皇帝, 改國號曰周, 自名暹, 在位二十二年. 中宗反正, 諡則天順聖皇后. 有《垂拱集》百卷, 《金輪集》六卷. 今存詩四十六篇.

拾》, 《唐大詔令集》 등에 무측천의 문장이 100여 편 정도 남아 있다. 《전당시》 작가소전에는 46편의 시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전당시》 권5에 47수·권13에 10수·《全唐詩外編》에 3수¹⁰⁾가 실려 있어, 현재 남아있는 시는 60수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무측천의 문장과 시 160여 편을 통해 무측천의 그의 문학적 재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60수의 시를 내용을 분석해 종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¹¹⁾

郊廟歌辭	<唐享昊天樂>(12수)(<武后大享昊天樂章十二首> <唐明堂樂章>(11수)(<武后明堂樂章十一首> <唐大饗拜洛樂章>(14수)(<武后大享拜洛樂章十四首> <唐武氏享先廟樂章>(<武后崇先廟樂章>) ¹²⁾ <武后享清廟樂章十首>	48수
遊宴詩	<早春夜宴>, <遊九龍潭>, <石淙>	3수
贈 詩	<制袍字賜狄仁傑>, <贈胡天師>, <賜姚崇>	3수
山水詩	<從駕幸少林寺並序>	1수
摧花詩	<臘日宣詔幸上苑>	1수
詠物詩	<曳鼎歌>	1수
閨怨詩	<如意娘>	1수
佛教詩	<聽華嚴詩並序>	1수
遊仙詩	<遊仙篇>	1수

10) 《全唐詩補編·全唐詩補逸》에 <遊仙篇>에 수록되어 있고, 《全唐詩補編·全唐詩續拾》에 <聽華嚴詩並序>와 <賜姚崇>이 수록되어 있다. 또 《全唐詩補編·全唐詩續補遺》에 <遊石淙詩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전당시》 권5에 서문 없이 시만 수록되어 있다.

11) 기존의 무측천 시 연구에서는 <從駕幸少林寺並序>와 <臘日宣詔幸上苑>를 遊宴詩의 범주에 넣고 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從駕幸少林寺並序>는 소림사의 자연풍광과 무측천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묘사하였기에 산수시 또는 회고시로, <臘日宣詔幸上苑>는 봄꽃이 빨리 피기를 명하는 내용이기에 摧花詩로 분류하였다.

12) 교묘가사는 《전당시》 권5 <武則天>에 38수가 실려 있고, 권10·권12·권15에 다시 중복되어 실려 있다. 제목이 권5와 달라 괄호로 처리했다.

2.1 郊廟歌辭

현재 전해지는 무척천 전체 시 작품의 80%를 차지하는 교묘가사 48수는 조정의 郊祀와 廟祭 의식에 사용한 樂章으로, 제사문화와 왕실생활이 그대로 담겨 있는 궁정문학이다. 《樂府詩集》에 수록되어 있는 漢代부터 五代까지의 교묘가사 총806수 중 唐代 교묘가사는 모두 395수로 전체 교묘가사의 49%에 해당하기에,¹³⁾ 당대에 교묘가사의 창작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척천은 당대 교묘가사의 약12%가 넘는 48수를 창작하였는데, 이는 社稷과 宗廟에 대한 제왕으로서의 공경의 표현이었으며 제왕으로서의 실천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唐享昊天樂>은 총12수로 南郊에서 昊天上帝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신을 맞이하고 제물을 바치고 신을 보내는 상황,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의 바람과 감회 등을 묘사한 시이다. 昊天上帝는 하늘을 지칭하는 것으로, 역대 왕조의 황제들이 제사를 지낸 신들 중 最高의 지위를 지닌 신이다.

<唐享昊天樂·第一>

太陰凝至化.	달은 지극한 교화로 이루어져,
眞耀蘊軒儀.	밝은 빛은 고고한 예의를 갖추었다네.
德邁娥臺啟.	덕이 뛰어난 娥皇이 누대를 세우고,
仁高姁輦披.	어질고 고고한 太姁가 휘장을 건네.
捫天遂啓極.	하늘을 어루만지니 드디어 북극성 열리고,
夢日乃升曦.	해를 꿈꾸니 이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네.

이 시에서 무척천은 제사를 지내는 자신을 娥皇과 太姁에 비유하였다. 요임금의 장녀로 동생 女英과 함께 순임금에게 시집을 간 아황처럼 덕행이 뛰어나고, 周나라 文王의 아내인 태사처럼 어질고 고고한 품행을 지닌 무척천은 호천상제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누대를 세우고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한다. 교화가 응축된 달은 예의범절마저 뛰어나 달빛마저 고고하게 제사를 준비하는 무척천

13) 成福君, 《唐代樂府制度研究》(首都師範大學碩士學位文, 2012), 2쪽 참조.

을 비춘다. 밤새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는데, 별이 지고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자 비로소 제사 준비가 끝난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햇살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무척천의 마음이며,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을 생각에 흐뭇한 호천상제의 환한 웃음이다.

<唐享昊天樂·第六>

昭昭上帝.	사리에 밝고 밝은 상제께서,
穆穆下臨.	신중하고 경건하게 임하셨네.
禮崇備物.	예로 받들어 제물을 갖추고,
樂奏鏘金.	악기 연주하니 종과 옥기 소리 쟁쟁쟁.
蘭羞委薦.	산해진미 바치고,
桂醕盈斟.	향기로운 계화주 가득 따르네.
敢希明德.	감히 공명정대한 덕을 바라노니,
幸罄莊心.	기쁘게 공경의 마음 다하였다네.

예의를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니 鐘과 玉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산해진미를 봉헌하고 향기로운 계화주까지 가득 따라놓으니 이제 제례상 진설까지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호천상제에게 제례상을 바치고 상제의 공명정대한 덕이 온 세상에 베풀어지기를 바라며 기쁘게 공경의 마음 다하는데, 다행히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아 흐뭇하다.

<唐明堂樂章>은 垂拱4년(688)에 明堂을 새로 지은 후에 제사를 지내면서 지은 교묘가사이다. 명당은 천자가 조상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政命을 반포하고 朝會를 하는 곳이다. 즉 祭政의 최고 책임자인 황제가 모든 儀禮를 행하는 곳이다. 《전당시》에는 11수가 실려 있는데, 《구당서》의 <音樂志>3에는 <則天大聖皇后享明堂樂章十二首>¹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제목 옆에 音調가 병기되어 있다.

시는 제사의 순서를 보여준다. 밖에서 제사 준비를 마치고 궁을 나와 명당으로 들어간다(<外辦將出>). 명당에 들어가는 이는 황제(<皇帝行>)와 황자

14) 제목은 12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실려 있는 시는 《전당시》와 똑같이 11수다.

(〈皇嗣出入升降〉), 그리고 왕후공경들이다(〈迎送王公〉). 명당으로 들어가(〈登歌〉), 제사를 올리기 위한 제례상을 진설하고(〈配饗〉), 제사가 시작된다.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제사를 지내니 그에 맞춰 음악이 연주된다(〈宮音〉・〈角音〉・〈徵音〉・〈商音〉・〈羽音〉).

제목 옆에 병기되어 있는 음조를 보면 〈外辦將出〉은 음악이 없고, 〈皇帝行〉부터 黃鐘宮調로 음악이 연주된다.¹⁵⁾ 〈登歌〉는 大呂調로 시작해서 無射羽調로 변환한다.¹⁶⁾

〈唐明堂樂章・登歌〉

禮崇宗祀.	예를 갖추어 종묘에서 제사를 모시며,
志表嚴禋.	장중한 의식으로 마음을 드러낸다.
笙鏞合奏.	笙篳과 大鐘을 함께 연주하니,
文物維新.	예악제도가 새로워졌구나.
敬遵茂典.	공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법령을 따르며,
敢擇良辰.	감히 좋은 시절을 고르네.
絜誠斯著.	제사에 대한 정성이 이렇게 드러나니,
奠謁方申.	바야흐로 술 올리며 제사가 시작되네.

종묘제사를 지내기 위해 명당으로 들어가는 근엄한 행렬과 웅장한 음악 가락이 들리는 듯하다.

〈唐大饗拜洛樂章〉는 (14수)는 측천무후가 洛水에 가서 제사를 올리는 내용으로, 《구당서》의 〈音樂志〉3에 〈則天皇后永昌元年大享拜洛樂章十五首〉¹⁷⁾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제목 앞에 악장의 용도가 병기되어 있다. 이는 《전당시》 권5에도 언급되어 있다.¹⁸⁾

《唐書·樂志》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則天皇后永昌元年大享拜洛樂》은

15) 《舊唐書》卷30 〈音樂志〉3: “皇帝行用黃鐘宮.”

16) 《舊唐書》卷30 〈音樂志〉3: “登歌大呂均無射羽.”

17) 제목만 실려 있고 본문이 빠진 〈欽和〉를 포함하면 제목처럼 15수이다. 또 《전당시》의 〈拜洛〉이 〈顯和〉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18) 《전당시》기록에 오류가 보여, 《구당서·音樂志(3)》에 근거해 교열하였다.

제례를 준비할 때 <昭和>를 사용하고, 그 다음은 <致和>, 그 다음은 <咸和>를 사용한다. 수레를 타고 처음 갈 때는 <九和>를 사용하고, 洛水에 제배를 올릴 때는 <顯和>를 사용한다.¹⁹⁾ 도서를 받을 때는 <顯和>를 사용한다.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때의 노래로는 <昭和>를 사용하고, 제례에서 희생 올리는 그릇을 받을 때는 <敬和>를 사용한다. 제례에서 잔에 술을 부어 올릴 때는 <欽和>를 사용한다. 문치를 칭송하는 文舞가 끝나고 무공을 기리는 武舞로 바뀔 때는 <齊和>를 사용한다. 武舞를 출 때는 <德和>를 사용한다. 희생을 올려놓는 그릇을 거두어들일 때는 <禋和>를 사용한다. 신과 작별을 고할 때는 <通和>를 사용한다. 신을 보낼 때는 <歸和>를 사용한다. <樂志>에 의거하면 또 <歸和> 1장이 더 있는데, 역시 신을 보내는 사詞이다.²⁰⁾

《구당서》의 제목에는 永昌元年(689)년을 창작시기로 명기했지만, 《구당서》의 <則天皇后本紀>와 <禮儀志>·《資治通鑑》에서는 垂拱4년(688) 12월 을유일을 창작시기로 기록하였다.

앞서 언급한 교묘가사들은 당 황실의 일원으로 올린 天祭와 종묘 제사를 위한 악장이며, <唐武氏享先廟樂章>과 <武后享清廟樂章十首>는 무씨 조상에 제사를 지내면서 읊은 시이다. 천제와 종묘 제사를 읊은 시에서는 자신의 정치 사상과 정치주장을 펼쳤고, 무씨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읊은 시에서는 무씨 가문과 자신의 공덕을 찬양했다. 《전당시》 교묘가사에 실린 무측천의 시들은 무측천이 직접 御撰했다고 하니, 무측천이 樂舞에도 상당히 정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19) 《전당시》에는 “次<拜洛>, 受圖用<顯和>”로 되어있다.

20) 《唐書·樂志》曰: 則天皇后永昌元年大享拜洛樂. 設禮用<昭和>, 次<致和>, 次<咸和>, 乘輿初行用<九和>, 拜洛用<顯和>, 受圖用<顯和>, 登歌用<昭和>, 迎俎用<敬和>, 酌獻用<欽和>, 送文舞出, 迎武舞入用<齊和>, 武舞用<德和>, 撤俎用<禋和>, 辭神用<通和>, 送神用<歸和>. 按<樂志>又有<歸和>一章, 亦送神詞也.

21) 무측천은 집권 초기에 편찬한 여러 문헌 중 하나가 樂律을 전문적으로 다룬 《樂書要錄》 10권이다. 이 책은 전해지지 않다가, 청나라 말기 일본주재 청나라 외교관이 당나라에 유학했던 일본 나라시대 학자인 吉備眞備(695~775)이 당에서 귀국하면서 가져온 《악서요록》 중 제5권·제6권·제7권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악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무측천이 악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전문적 저술의 편찬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종진, <太宗·武則天·玄宗의 唐代전기 樂舞발전에 대한 공헌> (《동양예술》 제24호, 2014), 125쪽 참조.

2.2 遊宴詩

무측천의 시 중 유연시는 <早春夜宴>, <遊九龍潭>, <石淙> 총3수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이 시들을 宴游詩²²⁾·宴飲記游類²³⁾·山水游宴詩²⁴⁾·游宴詩²⁵⁾·연회시²⁶⁾로 분류하였는데, <早春夜宴>은 이른 봄에 궁궐에서 밤에 송별연을 베풀며 지은 시이고, <遊九龍潭>과 <石淙>은 구룡담과 석종을 여행하며 연회를 베풀어 지은 시이다. 즉 대자연 또는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에서 즐겁게 노닐면서 잔치를 즐기는 느낌을 노래한 시이기에 유연시로 분류하였다.

久視 원년(700) 정월, 무측천이 조카 武三思에게 명하여 嵩山 石淙河에 지으라고 했던 三陽宮이 완성되었다.²⁷⁾ 삼양궁은 무측천이 송산을 순행할 때 쉬거나 여름철 피서를 위해 지은 行宮이다. 그해 여름인 4월에 무측천은 삼양궁으로 피서를 갔다.²⁸⁾ 그리고 5월 19일에 석종하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에서 신하들과 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은 무측천을 포함하여 태자 李顯, 相王 李旦, 梁王 武三思와 狄仁傑, 姚崇, 張易之, 張昌宗, 李嶠, 蘇味道, 閻朝隱, 崔融, 薛曜, 徐彥伯, 楊敬述, 于季子, 沈佺期 등 17명이다. 모자와 군신 간에 화기애애하게 술을 마시며 연회를 즐기다 흥이 오른 무측천이 시를 한 수 짓고, 신하들에게도 應製詩 한 수씩을 지으라고 하였다. 역사에서는 이 모임을 ‘石淙宴飲’ 혹은 ‘石淙會飲’이라고 한다.

<石淙>²⁹⁾

三山十洞光玄籙, 여러 산과 동굴에선 玄籙 같은 빛을 발하고,

22) 路榮, 《武則天詩歌研究》(西北大學碩士學位論文, 2001), 26쪽.

23) 程莉, 《武則天及其詩歌研究》(四川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14쪽.

24) 胡敏, 《武則天詩文男性化審美形態研究》(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28쪽.

25) 李楠, 《武則天詩歌研究》(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2017), 13쪽.

26) 유현정, 《武則天의 詩歌研究》(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43쪽.

27) 《資治通鑑·唐紀二十二》: 久視元年……春一月戊寅, 作三陽宮於告成之石淙.

28) 《資治通鑑·唐紀二十二》: 夏, 四月, 戊申, 太后幸三陽宮避暑.

29) 《全唐文》 卷97에는 무측천이 지은 <夏日遊石淙詩序>가 실려 있다.

玉嶠金巒鎖紫微。
均露均霜標勝壤，
交風交雨列皇畿。
萬仞高巖藏日色，
千尋幽澗浴雲衣。
且駐歡筵賞仁智，
雕鞍薄晚雜塵飛。

금옥처럼 아름다운 봉우리 자미성을 호위하고 있네.
이슬과 서리 온 대지를 적시고,
조화로운 바람과 비가 낙양 도읍에 펼쳐지네.
만길 솟은 바위는 햇살을 가리고,
천길 깊은 계곡은 구름옷을 걸쳤다.
연회 자리에서 어질고 지혜로움에 상을 내리니
화려한 안장에 어둠 찾아와 날리는 먼지와 섞어버리네.

도가의 비밀문서로 신비로운 예언서인 玄籙에 묘사되어 있는 仙境처럼 아름다운 嵩산의 기이한 봉우리들과 동굴들은 찬란한 빛을 발하고, 嵩산의 높은 봉우리들은 낙양의 궁성을 에둘러 싸고 있으니, 충성스러운 호위대 같다. 이슬과 서리가 대지를 풍요롭게 하듯이, 均전제와 조정의 정책이 시행되어 백성들의 생활은 윤택해지고, 하늘마저도 이 나라를 어여뻐 여기어 전국 각지에 바람도 알맞게 불어오고 비도 적절히 내려 온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날이 저물어 연회를 마치고 대신들은 화려한 말안장에 앉아 흠먼지 일으키며 돌아간다.

이 시는 7언율시로 구마다 대구를 잘 활용하고 있다. 嵩산의 아름답고 기이한 풍경이 三山十洞과 玉嶠金巒으로, 均전제와 조정의 정책을 농사를 도와주는 비와 바람·이슬·서리 등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均露均霜과 交風交雨의 대구로 표현하였다. 또 대구를 활용하여 嵩산의 웅장한 모습을 萬仞高巖과 千尋幽澗로 과장되게 표현했는데, 이로 인해 높은 곳에서 다시 아주 낮은 곳으로의 시각적 변화가 생겨 범상치 않은 기세가 느껴진다.

태평공주와 동행해서 九龍潭에 놀러갔다가 지은 <遊九龍潭>³⁰⁾도 대구를 사용하여 구룡담의 아름다운 산수와 그 풍경 속에서의 만족스러운 연회를 잘 그려내었다.

<遊九龍潭>

山窗遊玉女，
澗戶對瓊峰。

산 창문 같은 구룡동을 옥녀가 유람하니,
계곡의 출입문 아름다운 봉우리를 마주하고 있네.

30) 《文苑英華》 卷167에 <同公主遊九龍潭>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실려 있다.

岩頂翔雙鳳.	바위 꼭대기 두 마리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니,
潭心倒九龍.	깊은 못 한 가운데 구룡이 비치네.
酒中浮竹葉.	술엔 대나무 잎사귀가 떠있고,
杯上寫芙蓉.	술잔에는 연꽃이 아로 새겨져있네.
故驗家山賞.	고개 돌려 고향 산천 생각해보니,
惟有風入松.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 들리는 듯.

구룡담의 기이한 절경을 山窗·澗戶·岩頂·潭心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딸 태평공주를 雙鳳에 그리고 황제인 자신을 九龍에 비유하였다. 구룡담의 모습은 거시적으로 표현한데 비해 연회의 모습은 酒中·杯上·竹葉·芙蓉 등 미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죽엽청주와 부용옥잔 모두 황실에서 사용하는 고귀한 물품들이다. 그런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니 고향생각이 절로 나는데, 구룡담에서 들려오는 소나무에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고향에서 들던 그 소리라는 표현이 절묘하다.

2.3. 贈詩

무척천의 시 중에 贈詩는 <制袍字賜狄仁傑>과 <贈胡天師>, <賜姚崇> 모두 3수이다. 호천사는 도사 胡超를 지칭하고, 적인걸과 요숭은 무척천에 의해 등용되어 당나라의 재상직에 올랐던 賢臣들이다.

특히 적인걸은 貞觀之治와 開元盛世의 교량적 역할을 한 武周之治를 가능케 한 武周의 재상이다. 그는 무척천에게 서슴치 않고 직간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세웠을 뿐 아니라, 당나라 중흥에 크게 기여한 張柬之·桓彥范·敬暉·竇懷貞·姚崇 등 새로운 인재들을 천거하였고, 민생을 안정시켜 살아있는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生祠를 세울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또 李顯(中宗)을 다시 태자로 세우도록 하여 唐 왕조 부활에 공을 세웠다.³¹⁾

<制袍字賜狄仁傑>

敷政術. 정책을 시행함에,
 守清勤. 청렴과 근면을 지키네.
 升顯位. 재상의 자리 올라서,
 勵相臣. 신하들과 서로 격려해주길 바라네.

무측천은 萬歲通天 원년(696)에 거란이 冀州를 점령하자, 武承嗣와 來俊臣의 모함으로 彭澤 현령으로 좌천되었던 적인걸을 불러들여 魏州刺史로 임용하였다. 적인걸은 거란을 물리치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힘써 혼란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으로 다음해에 재상에 임명된다. 이에 무측천은 적인걸의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紫袍와 龜帶를 하사하였는데, 직접 도포에 위의 “敷政術, 守清勤. 升顯位, 勵相臣.” 12글자를 써서 하사하였다.

조정의 대신으로 청렴과 근면한 태도를 견지하는 적인걸이 재상이 되어, 다른 대신들과 협력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무측천의 염원이 담겨 있다. 적인걸이 죽었을 때 무측천이 “조정이 텅 빈 것 같다!”고 탄식하고, 조정에 큰 일이 있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하늘이 우리나라의 國老를 어찌 이리도 빨리 빼앗아 갔는가!”라고 탄식했다고 하니³²⁾ 적인걸에 대한 무측천의 신뢰가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측천이 자신을 위해 단약을 만들어 준 도사 胡慧超에게 써 주었던 <贈胡天師>를 감상해보자.

<贈胡天師>

高人業高志. 고고한 도인 승고한 뜻 지니고,
 山服往山家. 산길 따라 산속으로 갔네.
 迢迢聞風月. 아득하고 아득한 바람과 달 사이로,
 去去隔煙霞. 멀리 멀리 안개와 노을 너머로 가버렸네.

31) 《舊唐書·狄仁傑傳》: 仁傑常以舉賢爲意, 其所引拔桓彥範·敬暉·竇懷貞·姚崇等, 至公卿者數十人. …… 仁傑嘗爲魏州刺史, 人吏爲立生祠.

32) 《資治通鑑·唐紀二十三》: 辛丑, 薨. 太后泣曰“朝堂空矣!” 自是朝廷人事, 衆或不能決. 太后輒歎曰“天奪吾國老何太早邪!”

碧岫窺玄洞.	푸른 산봉우리에서 깊숙한 동굴을 살펴보니,
玉灶煉丹砂.	옥 부뚜막에서 단사가 만들어지는구나.
今日星津上.	오늘 별이 나루터에 떴으니,
延首望靈槎.	목 길게 늘이고 신령스런 뗏목 바라보네.

황제인 무척천이 자신의 고상한 뜻에 부합하여 속세를 떠나 西山의 거처로 돌아가는 호천사에게 지어 준 시이다. ‘迢迢’와 ‘去去’의 중첩어와 風月·煙霞를 사용하여 호천사의 거처가 속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그곳에서 호천사는 단약을 만들며 지낼 것인데, 그와 이별하는 오늘 나루터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은하수가 보인다. 은하수가 비치는 강물 위에 떠 있는 호천사를 태우고 갈 배는 도력 높은 호천사로 인해 靈槎 같이 신령스러워 보인다. 靈槎는 張騫이 서역으로 가면서 은하수의 발원지를 찾아보라는 武帝의 명을 받들어 은하수까지 올라갔다 왔을 때 탔다고 하는 신령스러운 뗏목이다.³³⁾ 무척천이 보기에 호천사가 타고 갈 배도 하늘의 은하수에까지 올라갈 것처럼 보인 듯하다.

호천사는 胡慧超로, 동진의 氣功養生家인 許遜의 淨明道를 전수받았다고 하는 신령을 가진 도사로 천둥과 비를 부릴 줄 알았다고 한다. 허손과 그의 제자들의 전기인 《洪州西山十二眞君傳》을 저술하여 허손의 仙道와 정명도의 뜻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였다. 무척천의 손자인 玄宗도 호혜초를 만났고, 그가 서산으로 돌아갈 때 <送胡天師> 2수를 지어 이별의 아쉬움을 노래했다고 한다.

2.4. 기타

무척천의 60수 시중 교묘가사 48수와 유연시 3수와 증시 3수를 제외하면

33) 《荊楚歲時記》: 武帝使張騫使大夏, 尋河源乘槎經月而至一處, 見城廓如州府, 室內有一女織, 又見一丈夫牽牛飲河. 騫問曰“此是何處?” 答曰“可問嚴君平.” 乃與一支機石而歸. 至蜀, 問嚴君平, 君平曰“某年月, 客星犯牛女.” 支機石爲東方朔所識.

山水詩 1수(<從駕幸少林寺並序>)와 摧花詩 1수(<臘日宣詔幸上苑>), 詠物詩 1수(<曳鼎歌>), 閨怨詩 1수(<如意娘>), 佛敎詩 1수(<聽華嚴詩並序>), 遊仙詩 1수(<遊仙篇>)가 있다.

<從駕幸少林寺>는 “소림사로 행차하는 황제를 따라 가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의 황후로 있었을 때 고종을 따라 소림사로 갔을 때 무척천이 지은 시이다.³⁴⁾ 소림사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잘 묘사한 산수시이다.

<從駕幸少林寺>

陪鑾遊禁苑.	천자의 수레와 함께 禁苑을 노닐기 위해,
侍賞出蘭闌.	황후도 궁을 나오네.
雲偃攢峰蓋.	구름은 못 산봉우리를 뒤덮고,
霞低挿浪旂.	노을은 바람에 나무기는 천자의 깃발에 드리워지네.
日宮疏澗戶.	일궁은 열어젖힌 문 같은 계곡으로 통하고,
月殿啓岩扉.	월진은 양쪽 늘어선 바위 동굴을 활짝 열었네.
金輪轉金地.	황금 수레마귀가 황제의 화원에서 움직이고,
香閣曳香衣.	아름다운 누각에 향기 가득한 옷자락이 끌리네.
鐸吟輕吹發.	방울 울리고 바람 가볍게 불어오니,
幡搖薄霧霏.	흔들리는 황제의 깃발에 안개가 얇게 피어오르네.
昔遇焚芝火.	예전에 火魔를 만나,
山紅連野飛.	산이 붉게 변하고 들판까지 불꽃이 날아갔었네.
花臺無半影.	화대는 그림자가 반도 남지 않게 타버리고,
蓮塔有全輝.	연길탑만이 온전히 남아 빛을 발하고 있었다네.
實賴能仁力.	실로 자애로운 힘에 기댈 수 있었으니,
攸資善世威.	훌륭한 자질은 대대로 내려온 위엄이었네.
慈緣興福緒.	자애로운 인연으로 복의 실마리가 생겨났으니,
於此罄歸依.	이에 인해 모두 불교에 귀의했다네.
風枝不可靜.	바람에 나뭇가지는 고요할 수가 없어,
泣血竟何追.	피눈물 흘리며 무엇을 추도하는가!

이 시는 소림사의 풍광을 읊은 산수시이면서, 무척천이 화재로 인해 손상된

34) 《舊唐書·高宗本紀》: 弘道元年(682)正月初五, 武后隨高宗至少林寺, 見其母舊營之所未償完功, 倍感淒涼, 作詩並序, 令武三思資金絹等物續成功德.

소림사의 재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썼던 어머니 楊氏를 그리워한 追悼詩이기도 하다.

고종과 황후가 승산의 계곡을 지나 소림사로 행차하는 행렬은 웅장하고 아름답다. 못 봉우리를 뒤덮는 오색구름은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고, 황제의 깃발에 감도는 노을은 황제의 은덕이 온 천지에 가득한 것을 상징한다. 어머니 양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이 완성되지 못한 소림사를 보면서, 어머니의 부재가 더 마음에 와 닿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자애로 소림사의 재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식 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슬픔에 피눈물만 흐른다.

무척천의 시 중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것은 규원시인 <如意娘>이다.

<如意娘>

看朱成碧思紛紛。
憔悴支離爲憶君。
不信比來長下淚。
開箱驗取石榴裙。

붉은 색이 푸른색으로 보일 정도로 애절한 그리움,
물골이 초췌해지도록 그대만 생각한답니다.
눈물로 지새우는 이 마음 믿지 못하신다면,
상자 열어 붉은 치마 꺼내 보세요.

이 시는 태종이 봉어한 후 아이를 낳지 못했던 무척천이 감업사로 출가한 후, 고종에 대한 그리움을 쓴 것이다. 《樂苑》에 의하면 <如意娘>은 商調曲이라고 하는데,³⁵⁾ 처량하고 비통한 느낌이 강한 商調는 그리움을 담은 내용과 잘 어울린다.

28자밖에 안 되는 7언 절구의 짧은 편폭으로 뚜렷한 기승전결의 전개를 통해 그리움 그 자체만을 오롯이 담아내었는데, 함축과 절제의 미학을 그대로 보여준 절창이다. 애끓는 그리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으로 승화시켜, 독자에게 절절한 그리움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첫째 구는 남북조시대 梁나라 王僧孺 <夜愁示諸賓>의 “誰知心眼亂，看朱忽

35) 《樂苑》上: <如意娘>, 商調曲, 唐則天皇后所作也.

成碧(수심에 젖어 마음 심란한 것 누가 알리/ 붉은 색이 홀연 파란색으로 보이네)”의 의미를 빌려 썼는데, 눈앞의 붉은 색이 푸른색으로 보일 정도로 그리움에 갈피를 못 잡는 심란함을 묘사하면서 그리움에 고운 얼굴이 파삭 늙어버렸다는 이중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네 번째 구의 ‘石柳裙’은 같은 시대 齊나라 何思澄의 <南苑逢美人>의 “風捲葡萄帶, 日照石榴裙(바람은 포도무늬 허리띠에 감돌고/ 햇빛은 석류빛 치마 위를 비추네)”의 의미를 빌려 온 것이다. 石柳裙은 당나라 때 젊은 여인들이 즐겨 입었던 석류꽃 수가 놓아진 붉은 치마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만날 수 없는 생이별로 애틁은 그리움에 날로 시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움을 믿지 못한다면 상자를 열어 석류꽃 수 놓아진 붉은 치마를 한 번 보라고 한다.

역사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야사에서는 태종이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 무척천이 병간호를 했고 병문안을 왔던 황태자였던 李治(고종)와 이때 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상자(箱)’이라고 하는 것은 감업사로 들어가기 전 무척천이 이치에게 전한 사랑의 증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 안에 석류꽃을 수놓은 붉은 치마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것이다. 다시 볼 수 없는 생이별의 서글픔으로 끊임 없이 흘러나온 눈물에 그만 폭 젖어버린 붉은 치마. 이 붉은 치마는 무척천의 丹心을 상징한다. 무척천은 말한다. “찢어지는 내 마음을 믿기 못하겠거든 증표로 드린 상자 열어 보세요. 아직도 눈물에 젖어 마르지 않은 붉은 치마가 보일 것입니다.”

3. 남성적 권위에 대한 도전

유교적 도덕윤리에 물들었던 후대의 학자들은 여성의 몸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겨, 王夫之는 무척천을 귀신도 용서할 수 없고 신하

들과 백성들의 공통적인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며 극단적으로 폄하하였다.³⁶⁾ 또 역사가들도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그 기록조차 정확히 하지 않았다.³⁷⁾ 하지만 무측천은 일대를 풍미했던 통 크고 남다른 모략을 지닌 풍운의 여걸이었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시는 남성적 권위에 위풍당당하게 던지는 도전장이며, “유일무이한 황제가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공표하는 선언장이기도 하다.

3.1 天祭와 封禪

진시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이후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황제들이 명멸을 거듭했지만, 여성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는 무측천이 유일하다. 무측천은 중법질서에 의해 다스려진 중국의 역사속의 이단아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은 어떤 질적인 ‘결여’ 때문에 여성이다. 우리는 여자들의 본성에 타고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성 토마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이어받아,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이며 ‘우발적인’ 존재라고 단정했다. 보쉬에의 말에 따르면, 이브가 아담의 ‘여분의 뼈’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전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자의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은 남성이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 자체로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를

36) 王夫之, 《讀通鑑論》: 武氏之惡, 浮於韋氏多矣! 鬼神之所不容, 臣民之所共怨, 萬世聞其腥, 而無不思按劍以起.

37) 《신당서》와 《구당서》의 무측천 본기 대목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殺’字이다. …… 어떤 어휘를 사용했는지에 사관의 의도 즉 褒貶이 담겨 있다. 《신당서》의 무측천 본기는 다른 사건은 거의 없이 반복되는 ‘殺’자만으로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기간을 《구당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천수 원년(690) 《구당서》에는 ‘殺’자가 두 곳뿐이지만, 동일한 한 해 《신당서》에는 ‘殺’자만 18곳이 등장한다. …… ‘誅’는 죽여 마땅한 자를 처벌할 때 쓸 수 있는 글자인데, 《신당서》 무측천의 본기 전체에서 ‘誅’자가 사용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다. 이는 무측천은 재위 기간 한 번도 명분에 합당한 주살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의미이다. (안예선, <《신당서》와 《구당서》의 서사 비교 - 무측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90집, 2018, 140쪽 참조)

통해 정의한다. 그들은 여자를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방다도 《유리엘의 보고》에서 “남자의 육체는 여자의 육체와의 의미를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성의 육체는 남성의 육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남자는 여자 없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확인했다. 말하자면 여자란 남자가 규정짓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³⁸⁾

근대 이전까지 사회적 통념상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여자는 불완전한 남자이며 우발적인 존재로, 남자가 규정지어야만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여성인 무측천은 남성적 권위의 정점인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여 후세에 武周之治로 일컬어지는 안정기를 이룩하였다. 무측천이 황후로서 또 무주의 황제로서 천하를 통치했던 기간은 초당시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에 그녀가 여러 방면에 끼친 영향은 의심할 바 없이 크다.

上元元年(674)에 무측천은 고종에게 建言12事라는 건의서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농업발전과 조세경감·언론 확대 등 비교적 완비된 치국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고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라는 조서를 반포하였고, 그녀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해서 후에 정사를 처리하는 권한을 상당부분 무측천에게 넘겨주었다. 무측천은 통치자로서의 정치적 기술과 안목을 지녔다. 정치적 기술은 부국강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측천은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개선하였다. 과거제도는 수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당나라 초기에 상당부분 발전하였는데, 특히 고종의 황후로서 무측천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진일보 발전하였다. 고시과목과 모집인원수가 증가했고 殿試가 처음으로 개설되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이후 각 조대에서 효율적으로 계승되어 발전하였다.³⁹⁾

38) 시몬느 드 보부아르 저/ 이희영 역, 《제2의 성》(동서문화사, 2009), 14-15쪽.

39)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上海古籍出版社, 1982), 22쪽: 進士試雖設於隋代, 而其時特見尊重, 以爲全國人民出仕之唯一正途, 實始於唐高宗之代, 卽武專政之時。…… 進士科主文詞,

무측천은 과거제도중 특히 進士科를 중시했다. 책문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없기에, 永隆2년(681)에 詩賦 2편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여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 것이다. 문학적 재능은 경전 암송을 통해 길러질 수 없는 재능이기에, “三十老明經, 五十小進士(서른에 명경과에 급제하면 늦은 것이지만, 쉰에 진사과에 급제하면 빠른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급제가 어려웠던 만큼 진사에 급제한 이들은 아주 유능했고, 당시와 이후 현종시기에 요직에 임명되어 능력을 발휘했다. 또 출신이 아닌 실력을 중시했기에 귀족 출신이 아니더라도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될 수 있었는데, 실제 무측천이 시행한 과거제도를 통해 재상에 오른 27명 중 유명한 집안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재상이 된 자는 겨우 3명에 불과했다.⁴⁰⁾

그러한 인재들을 거느리고 정치를 펼치면서 무측천의 황제만이 행할 수 있는 천제와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를 직접 주관하였다. 그녀의 시 60수 중 80%를 차지하는 교묘가사 48수는 직접 제천의식과 조정의 郊祀와 廟祭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악부시집》에 수록된 漢代부터 五代까지의 교묘가사 총806수 중 49%에 해당하는 395수가 모두 당나라 때 지어졌다. 당나라 때의 교묘가사의 12%에 해당하는 48수를 무측천이 지었는데, 이는 다른 제왕들과 비교해 월등한 양이다.

垂拱4년(688), 雍州 永安사람 唐同泰가 洛水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서린 돌 하나를 발견해서 바치는데, 돌에는 “聖母臨人, 永昌帝業(성모가 강림하니, 제국이 영원토록 번창하리라)”라고 쓰여 있었다. 무측천은 남쪽 교외로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돌을 ‘寶圖’라고 하고 자신의 존호에 ‘聖母神皇’이라는 글자를 더해,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⁴¹⁾

이 때 남쪽 교외에서 지낸 제사에 사용된 교묘가사가 <唐享昊天樂> 12수

高宗、武后以後之新學也.

40) 하영애, <신라 선덕여왕과 중국 측천여황제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담론201》 제14권 1호, 2011), 130쪽 참조.

41) 《舊唐書·禮儀志三》: 則天垂拱四年四月, 雍州永安人唐同泰僞造瑞石於洛水, 獻之. 其文曰 “聖母臨人, 永昌帝業”. 於是號其石爲寶圖, 賜百官賜百官宴樂, 賜物有差. 授同泰爲游擊將軍.

이다.

<唐享昊天樂·第四>

巍巍睿業廣.	위대하고 위대한 제왕업적의 방대함이며,
赫赫聖基隆.	성대하고 성대한 당왕조 기반의 융성함이며.
菲德承先顧.	미약한 덕으로 선조의 보살핌을 입어,
禎符萃眇躬.	길한 징조가 내 몸에 깃들었네.
銘開武岩側.	광무명을 무암에서 발견하고,
圖薦洛川中.	천수성도를 낙수에서 찾았다네.
微誠詎幽感.	미약한 정성으로 어찌 천제를 감응시킬 수 있겠냐만은,
景命忽昭融.	천명을 받들어 제업을 한층 더 빛나게 하리라.
有懷慚紫極.	천제를 대하기 부끄럽기 그지없고,
無以謝玄穹.	하늘에 감사할 방법이 없다네.

泗水에서 “化佛空中來(화신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글이 쓰여진 廣武銘이란 상서로운 돌이 발견되고, 당동태라는 이는 洛水에서 ‘寶圖’를 찾아 헌상하였다. 이 모든 것은 무측천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에 오르라는 징조이다. 무측천은 스스로를 낮추어 천제를 감응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미약한 힘이지만 천명을 받들겠다고 선언하며, 이 모든 상황이 부끄럽기만 하고 어떻게 하늘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평가받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자신의 즉위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황제들도 모두 행했던 일이다.

무측천은 황제들만이 행하는 제사를 주관하고 직접 악장까지 지어 황제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만이 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또 무측천이 지은 <唐武氏享先廟樂章>과 <武后享清廟樂章十首>을 보면, 무주를 건국한 후 자신의 무씨 조상을 위한 종묘를 세우고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唐武氏享先廟樂章>

先德謙撝冠昔.
嚴規節素超今.
奉國忠誠每竭.
承家至孝純深.
追崇懼乖尊意.
顯號恐玷徽音.
既迫王公屢請.
方乃俯遂群心.
有限無由展敬.
奠醑每闕親斟.
大禮虔申典冊.
蘋藻敬薦翹襟.

선조의 덕행 중 겸손함은 과거에 으뜸이었고,
엄격한 규범과 절조 질박함은 지금 가장 뛰어나다.
나라를 받든에 언제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하고,
집안을 다스림에 지극한 효성과 인애로 하였네.
선조를 추존함이 선조의 뜻에 어긋날까 두렵고,
휘호를 올림이 아름다운 언행에 누가 될까 두렵네.
왕공이 여러 차례 요청하니,
지금 바로 민심을 굽어 살펴보소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손히 제사를 드리며,
제사 지낸 좋은 술을 모든 궐문에 직접 따르네.
성대한 의식은 경건하게 전적에 기록되었으니,
수초를 공손히 올려 마음을 드러내네.

무측천은 자신의 조상들이 겸손함과 엄격한 규범, 지조, 검소함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효성과 인애로 집안을 다스렸다고 한다. 지금 자신이 황제가 되어 선조들을 추존하고 휘호를 올리지만, 이러한 행위가 선조들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다고 한다. 그렇게 조상들을 미화시켜 무측천 자신은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조카인 武三思를 후계자로 내세워 武周를 이어갈 생각을 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부계로 이어진 장자상속 원칙의 왕권세습이 큰 변혁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측천은 고모를 위해 태묘를 세우는 조카가 없다는 적인결의 직간과 매번 지는 雙陸 꿈⁴²⁾·앵무새의 날개가 꺾인 괴이한 꿈⁴³⁾에 대한 신하들의 꿈 풀이를 듣고, 폐위시켰던 李顯을 다시 복위시키고 당나라를 복원시킨다.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이 그 권력을 다시 내려놓으려고 결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 많은 편견과 위기를 극복했지만, 마지막에

42) 《新唐書》卷115: 武則天對臣下說“朕數夢雙陸不勝. 何也?”對曰“雙陸不勝, 無子也. 天其意者以徹陛下乎! 且太子(李顯), 天下本, 本一搖, 天下危矣.”后感悟, 即日遣徐彥伯迎廬陵王(李顯)於房州.

43) 《資治通鑑·唐紀二十二》: 又謂仁傑曰“朕夢大鸚鵡兩翅皆折, 何也?”對曰“武者, 陛下之姓, 兩翼, 二子也. 陛下起二子, 則兩翼振矣.”太后由是無立承嗣·三思之意.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와 자신을 그저 황후로만 기억해달라고 했다.⁴⁴⁾

3.2 유일무이한 황제의 권위

《唐詩紀事》에 따르면 中宗은 대신들을 이끌고 연회를 베풀며, 감흥이 일면 즉시 시를 짓고 학사들이 모두 황제의 시에 화답하였는데, 이러한 시가 창작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던 것이었다고 한다.⁴⁵⁾ 이러한 기풍은 무측천 때 생긴 것으로, 앞서 살펴본 <石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전당시》 권46에 그 당시 狄仁傑이 지은 응제시가 실려 있다. 적인걸의 응제시 <奉和聖製夏日遊石淙山>, 제목아래 注를 보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석종산은 지금의 登封縣 동남쪽 30리에 위치하며, 측천무후와 여러 신하들의 侍宴詩가 북쪽 벼랑에 새겨있다. 그 서문에서 석종은 平樂澗이라고 하였다. 측천무후가 직접 7언시 한 수를 짓고, 무후의 명을 받들어 함께 노닐던 황태자 李顯(中宗), 相王 李旦(睿宗), 梁王 武三思, 內史 狄仁傑, 奉宸令 張易之, 麟臺監 張昌宗, 鸞臺侍郎 李嶠, 鳳閣侍郎 蘇味道, 夏官侍郎 姚元崇, 給事中間 朝隱, 鳳閣舍人 崔融, 奉宸大夫 薛曜, 守給事中 徐彥伯, 左奉宸內供奉 楊敬述, 司封員外 于季子, 通事舍人 沈佺期 등이 각기 7언시 한 수씩을 지었다. 薛曜가 칙령을 받들어 정서하여 돌에 새기었다. 그 때가 久視元年 5월19일이다.⁴⁶⁾

44) 去帝號, 歸本宮, 葉落歸根也.

45) 《唐詩紀事》 卷3: 天子饗會遊豫, 惟宰相·直學士得從, 春幸黎園並渭水祓除, 則賜柳圈辟癘. …… 帝有所感, 卽賦詩, 學士皆屬和, 當時人所欽慕.

46) 石淙山, 在今河南登封縣東南三十里. 有天后及群臣侍宴詩并序刻北崖上. 其序云, 石淙者, 卽平樂澗, 其詩天后自製七言一首. 侍遊應制皇太子李顯(中宗), 相王李旦(睿宗), 梁王武三思, 內史狄仁傑, 奉宸令張易之, 麟臺監張昌宗, 鸞臺侍郎李嶠, 鳳閣侍郎蘇味道, 夏官侍郎姚元崇, 給事中間朝隱, 鳳閣舍人崔融, 奉宸大夫薛曜, 守給事中徐彥伯, 左奉宸內供奉楊敬述, 司封員外于季子, 通事舍人沈佺期各七言一首. 薛曜奉勅正書刻石. 時久視元年五月十九日也. (《全唐詩》 卷46)

무척천은 명승지이며 儒佛道의 성지인 석종을 자주 찾았다. 풍광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시로 지었는데, 단순히 풍광과 연회의 즐거움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均露均霜標勝壤, 交風交雨列皇畿(이슬과 서린 온 대지를 적시고, 조화로운 바람과 비가 낙양 도읍에 펼쳐지네)”라며 균전제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부국강병과 백성들의 안락한 삶을 이끌어 낸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자랑하였다. 이에 대한 대신들과 和唱 또한 무척천에 대한 칭송이었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며 자신을 칭송하고 또 신하들에게 칭송을 종용하는 황제의 오만이 느껴진다.

<臘日宣詔幸上苑>

明朝遊上苑.	내일 아침 상원을 노닐 것이니,
火急報春知.	불타듯 급히 꽃이 피어 봄소식을 알리길,
花須連夜發.	꽃은 반드시 밤부터 피어나리니,
莫待曉風吹.	새벽바람 불기를 기다리지 말라.

“臘日に 上苑에 행차하며 조서를 내리다”는 제목의 이 시는 이른 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피우라고 花神에게 조서를 내린 것이다.

무척천은 낙양에서 즉위식을 마치고 축하연의 취기가 가지지 않은 상태로 충신들을 이끌고 황궁 화원으로 꽃구경을 나섰는데, 아직 겨울이라 水仙과 臘梅, 冬柏만이 피어있었다. 꽃이 피지 않은 것에 노한 무척천에게 태평공주는 폐하의 명이 없어 꽃이 피지 않았다고 아뢰자, 곧바로 이 시를 지어 궁인들에게 주면서 이 시를 불살라 花神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상원에는 꽃들이 다투어 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무척천은 새로이 축하연을 벌이고 술잔을 들어 화신마저도 복종시킨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했다고 한다.⁴⁷⁾

과장이 많은 이야기이지만 무척천의 무소불위의 황제적 권위를 엿볼 수 있다.

www.kci.go.kr

47) 《事物紀原》(宋, 高承), 《灌園叟晚逢仙女》(明, 馮夢龍), 《鏡花緣》(清, 李汝珍)에 이와 관련된 고사가 수록되어 있다.

3. 결론

무측천은 14살에 궁궐에 才人으로 들어가 황제의 보좌에까지 올랐다. 이는 결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잡았던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간 결과였다. 유교 도덕이 지배하던 고대 중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여성의 인권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황제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거대한 벽을 돌파해야 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무측천은 그 벽을 깬다. 그녀는 강한 남자만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에 남자들과 맞서고, 제압하고, 설득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무측천은 48수나 되는 교묘가사를 통해 祭政 담당이라는 남성적 권위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던졌고, 태종과 고종·武周 치세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의 공적을 시 속에 담아내고, 이를 대신들에게 和唱하고 應製하라고 명했다. 무측천은 자신의 시들을 통해 “유일무이한 황제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공표한 것이다. 그녀가 남긴 시들은 중국의 남성 위주 역사 서사 속에서 찬탈로만 알려져 온 그녀의 정치 행위 이면에 남성적 권위에 대해 도전하려 했던 고뇌와 분투도 존재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후대에 일방적으로 무측천은 찬탈자로서의 이미지만 덧씌워져,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자식의 목숨까지 앗아간 탐욕스러운 권력욕에 의해 부정되어지고 비판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가 도덕이 훨씬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긴 시대 동안 그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이 소실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봉건시대에 편파적인 평가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시들은 현대인의 시선으로 되돌아보고 재평가할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

〈 參考文獻 〉

- 《舊唐書》，中華書局，1995.
- 《新唐書》，中華書局，1995.
- 《資治通鑑》，中華書局，1991.
- 《全唐詩》，中華書局，1987.
- 《全唐文》，中華書局，1987.
- 《樂府詩集》，中華書局，1970.
- 《唐詩紀事》，中華書局，1990.
- 段塔麗，《唐代婦女地位研究》，人民出版社，2000.
- 鄧小南，《唐宋女性與社會》，上海辭書出版社，2003.
- 趙文潤·王雙禧 著/ 김택중·안명자·김문 역，《무척천 평전》，책과 함께，2004.
- 外山軍治 著/ 박정임 역，《축천무후》，페이퍼로드，2006.
- 시몬느 드 보부아르 著/ 이희영 역，《제2의 성》，동서문화사，2009.
- 路 榮，《武則天詩歌研究》，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2001.
- 程 莉，《武則天及其詩歌研究》，四川大學 碩士學位論文，2006.
- 胡 敏，《武則天詩文男性化審美形態研究》，湘潭大學 碩士學位論文，2009.
- 吳格言，〈武則天執政對初唐詩歌發展的影響〉，齊魯學刊，1999年 6期.
- 趙小華，〈武則天執政與洛陽文學發展分析〉，殷都學刊，2006年 2期.
- 郭海文，〈武則天詩歌研究〉，渭南師範學院學報，2009年 1期.
- 司海迪，〈論武則天詩歌中的帝王氣象〉，湖南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2009年 6期.
- 李海燕，〈武則天詩歌內容探析〉，《當代小說》，2010年 3期.
- 吳 蔚，〈武則天之文學觀與初唐洛陽詩壇〉，湖南社會科學，2011年 3期.
- 任大熙，〈則天皇后 執政時期的 政治와 人物〉，《魏晉隋唐史研究》第2輯，1996.
- 장정해，〈武則天 설화에 나타난 예언과 징조〉，《중국어문학지》제14집，2003.
- 안정훈，〈축천무후(則天武后)의 문자숭배 관념에 대한 고찰〉，《中國文學》제41호，2004.
- 하영애，〈신라 선덕여왕과 중국 축천여황제의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담론201》제14권 1호，2011.
- 남종진，〈太宗·武則天·玄宗의唐代전기 樂舞발전에 대한 공헌〉，《동양예술》제24호，2014.
- 신정수，〈축천무후의 남성 편력에 관한 문학적 각색 양상 연구: 동아시아 여성군주론의

관점에서>, 《中國學論叢》 제57호, 2017.

안예선, <《신당서》와 《구당서》의 서사 비교 - 무측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90집, 2018.

< Abstract >

A Study of China's Only Empress Wu Zetian's Poems
— Between the Subjugation of Power and the Challenge of Authority

Rho, Eunjung

In china, there were largest number of emperors in history. About 494 people have been named emperor in China, ranging from Qin Shi Huangdi to Emperor Puyi. Among them, Wu Zetian of Tang Dynasty is the only woman who became emperor. At the age of 14, Wu Zetian entered the palace as a royal concubine and ascended to the throne of the emperor. This was not the result of a opportunity that came by chance, but the result of a systematic step-up. In ancient China, where Confucian morality dominated, women's status was very low and women's rights did not exist at all. So she had to break through a huge wall to become an emperor. In a male-dominated society, women's entry into society was completely impossible. But Wu Zetian absolutely broke the wall. She built her own world by confronting, overpowering, persuading men and cooperating with them in an era when only strong men changed the world as a hero. Wu Zetian challenged the masculine authority of the theocratic policy with 48 numbers of jiaomiao songs. Through Taizhong, Gaozhong, and the reign of Wu Zhou, she gave full pay to her political prowess, Wu Zetian wrote her success in poetry and ordered her ministers to write a poem in answer to her poetry. In her poems, Wu Zetian announced "The Emperor is not someone else, but me."

Key words: Wu Zetian, Tang's Poetry, jiaomiao songs, Banquet Poetry, Poetry of boudoir repining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30	2019. 5. 12	2019. 5. 24	2019. 5. 28	2019. 6. 30